



대학 영어 교수자의 비자발적인 전면적 온라인 교육 경험에 대한 탐색 연구

오선주·전지현 (이화여자대학교)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Feb. 15, 2021
Revised: March 09, 2021
Accepted: March 16, 2021

Seon Ju Oh (1st author)
Graduate Student, Ewha
Womans University
Tel: 010-5596-0500
sunoh91@gmail.com

Jihyeon Jeon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Tel: 02-3277-3557
dearjeon@ewha.ac.kr

ABSTRACT

Oh, Seon Ju and Jihyeon Jeon (2021). An exploratory study on college professors' nonvoluntary on-line-only teaching.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1, 298-323.

Due to the COVID-19 pandemic, domestic universities have been forced to become a vast experimental ground for using technology for online classes. Despite the decades' research on the use of technology in the field of English education, these online classes, which were suddenly and involuntarily administered to both teachers and learners, puzzled everyone. Considering a crisis can work as an opportunity, this unfamiliar non-face-to-face situation can be an opportunity to look at the teachers' response to the crisis more clearly than the usual face-to-face situation. This study explored the experience of the college instructors, facing unprecedented challenge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four university professors who managed on-line-only English classes during the pandemic in 2020, asking the difficulties, emotions, solutions, and any changes while they were facing challenges this time. All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transcribed to generate initial codes for each participant. The concepts with similar attributes were categorized through the process of integrating and reducing the codes. As a result, the challenges experienced by the participants were broadly categorized into two levels—individual and institutional. Participants' emotions along with the obstacles they perceived; the ways they dealt with those obstacles; and any internal or external changes were further explored. The implications are discussed based on these results.

KEYWORDS

on-line teaching, English teacher emotions, college instructors, COVID-19

1. 서론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을 세계적 대유행으로 선언하면서 국내 대학들은 오프라인 중심 교육에서 전면적인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을 맞아 전통적인 면대면 수업에만 익숙했던 국내 대학들이 준비할 틈 없이 사상 초유의 전면 온라인 원격 학습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국내에서 이미 방송통신대학과 20여개의 사이버대학들이 안정적인 온라인 교육을 제공해왔지만, 오프라인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대학에서는 극히 부분적으로만 온라인 강좌를 운영해 왔다(도재우 2020).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시행하게 된 전면적 온라인 교육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응급 상황이면서 큰 도전이었다. 교수들은 대면 강의 때보다 온라인 강의를 준비할 때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고 하지만,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 전달력이 대면 강의에 비해 떨어진다는 등 학교 구성원들이 체감하는 온라인 교육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동아닷컴 2020).

이동주와 김미숙(2020)은 2020년 1학기 영어 관련 강좌의 전면적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학생 2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원격 수업 방식, 학생들이 인지하는 수업의 질, 학습 만족도, 온라인 수업 선호도를 분석 후 개선점과 보안점을 제시하였다. 서울 소재 한 대학교에서도 2020년 1학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교수 455명, 학생 957명을 대상으로 원격 수업 진행 형태, 선호하는 원격 수업, 원격 수업의 어려움, 학교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앞으로의 활용 의사 등을 묻는 유사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이화여자대학교 2020). 이와 같은 양적 조사 연구는 긴급하게 이루어진 전면적 온라인 수업의 현황을 신속하게 제시할 수 있었지만 교육의 주체들이 어려움에 직면하여, 어떠한 감정으로 어떻게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

위기적 상황은 언제나 닥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의 위기상황에서 대학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은 미래의 또다른 위기를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적인 교육의 필요성은 물론이거니와 언제든지 재확산이 될 수 있는 감염병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경험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질적 연구가 절실하다.

일반 오프라인 대학에서 비용 절감의 효과 및 유연한 학사 일정을 제공하는 온라인 수업을 일부 활용해 왔다(이동주, 김미숙 2020). 또한 의사소통 중심 기능의 통합적 영어교육에서, 테크놀로지는 통합적 교수-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국내 영어교육 분야에서 1996년 이후부터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외국어 교수-학습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고 2005년 이후부터는 인터넷 쌍방향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영어 수업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령,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을 이용한 교수-학습 방법은 대학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고, 면대면 수업과 비교한 온라인 수업의 효과를 증명하거나 온라인 수업에 적합한 교수 설계를 제시하는 연구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 왔다(도미나, 김정렬 2019).

사이버 대학을 중심으로 한 영어 수업 테크놀로지 관련 연구가 많은데 크게 (1) 이러닝에 적합한 콘텐츠 개발(김주혜, 김영우, 배주경, 이의길 2012, 임선영, 김성연 2004, 조순정 2015), (2) 효과적인 교수-학습 설계와 전략(김현숙, 박은영 2011, 김희진 2014, 김희진, 광정아 2013, 김희진, 허광 2016, 이정화, 김주혜, 조수근 2010), (3) 이러닝 교수자의 역할과 지원체계(김주혜 2012, Escobar-Fandiño, Munoz and Silva-Valencia, 2019, Escobar-Fandiño and Silva-Valencia 2020), (4) 이러닝 영어 교육의 실재감과 성취도(김희진 2018)를 연구하는 것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온라인 교수-학습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2020년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대학의 온라인 수업은 기존의 온라인 교수-학습 상황과는 다른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온라인 교수-학습 상황이 기관이나 개인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2020년도의 전면 온라인 수업은 사전 준비나 개인의 선택이 없는 비자발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교사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제반 여건의 갑작스러운 변화 속에서 개인 혹은 전문가로서의 삶이 부조화(Chen 2016)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감정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과 자신감의 차원에서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그가 처한 사회적 상황, 문화, 맥락에 의해 형성되고 내재화될 수 있다(Song 2018). COVID-19 이후 초등 교사들의 일과 노동의 변화를 탐색하였던 정바울과 장유정(2020)은 대면 수업과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교사가 느끼는 감정이 다르며, 비대면 수업 시 교사 감정의 표현에서 과잉이 일어나며 이로 인해 교사들에게 감정 노동이 발생된다고 한다. 교사가 갖는 감정은 개인적이며 동시에 사회적이다. 비자발적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진 2020년도의 수업에서 교수자가 어떠한 경험을 하며, 어떤 감정을 가지며 변화하는 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0년이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교수자의 감정을 특별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의 교수자나 학습자의 정서적 측면의 연구도 필요하다. Stockwell과 Reinders(2019)도 이러닝과 연관된 정서적 측면을 연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내에서 이러닝의 구성 요소와 불안감을 탐색한 연구(김주혜 2007), 녹화된 동영상을 학습하는 온라인 강의보다 실시간 온라인 강의에서 대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높다는 연구(박은경 2020), 교수자의 이러닝에 대한 정서적 측면을 분석한 연구(박선호, 최희경 2020)가 있기는 하지만 온라인 학습의 정서적 측면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드물게 수행되고 있다. 영어 수업은 타 수업과 비교할 때 단순한 정보 전달보다는 상호작용이 더욱 요구된다. 면대면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히 강의를 어떻게 녹화하고 제공하는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사전적 이해와 더불어 교수자가 겪을 수 있는 정서적 고충과 해결책에 대한 다양한 경험적 정보가 필요하다(도재우 2020).

익숙하지 않은 비대면 온라인 교수-학습 활동은 현재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고 있지만, 동시에 미래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여 더 나은 품질의 온라인 수업을 개발하고 제공할 준비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준비없이 겪었던 온라인 수업에 대해 차분하고 면밀한 성찰을 한다면 온라인의 제약을 극복하고 수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상황은 감염병의 확산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이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감염병의 위험을 줄이면서 학습자 교수자 모두 장소와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온라인 수업은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전통적 면대면 수업에 익숙한 학습자와 교수자들에게 하나의 위기가 될 수 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학습자나 교수자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떠한 감정을 느끼며, 어떻게 변화하는 지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COVID-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하여 경험이나 준비없이 갑작스럽게 온라인 수업을 담당하게 된 2020년 1년 동안 교수자들이 어떤 문제를 접하고, 어떤 감정을 경험하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며 변화하는 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선행연구

2.1. 온라인 테크놀로지의 활용과 영어 수업

국내에서는 1996년 이후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수업 가능성과 효과를 검증하는 데 주력해 왔다(도미나, 김정렬 2019). 2010년 이후에는 급속도로 발달한 모바일과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영어 수업 콘텐츠 개발(김희진 2014), 수업 참여도를 높이는데 테크놀로지를 활용(이현주 2010), 이러닝 영어 수업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교수-학습전략(이정화, 김주혜, 조수근 2010) 등이 꾸준히 제안되었다. 온라인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수-학습 연구는 이처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주로 사이버대학 수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이동주, 김미숙 2020). 사이버대학의 이러닝 영어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와 탈동기의 요인으로 이상적 제2언어 자아와 불안감을 탐구하거나(김남희 2019), 이러닝 영어 수업의 실재감과 학습자의 성취도의 관계를 파악(김희진 2018)하고, 학생들의 인식을 통해 나타나는 이러닝 영어 교수자의 역할을 알아보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한(김주혜 2012) 것들이 있었다.

오프라인 일반대학에서도 온라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효과에 대해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특정 학습활동이 온라인 수업과 병행되었을 때 블렌디드 수업이 기존의 전통적 오프라인 수업의 대안이 될 가능성을 제시하거나(김태영, 김은주, 김혜영 2011), 효과적인 블렌디드 러닝의 교수 모형을 모색하고자 하는(김희진, 이현구 2011) 연구를 볼 수 있다.

해외에서는 동시적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응용하거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수업이 외국어 학습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지닌 장점과 효과성을 알아보는 실증적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Bueno-Alastuey 2011, Jung et al. 2017, Sun and Gao 2020).

언급된 온라인 테크놀로지를 영어 수업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첫째, 테크놀로지의 활용의 장점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고, 둘째, 테크놀로지의 활용을 학습자들의 동기와 연관지어 연구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편으로는 발전된 테크놀로지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지나치게 확신하는 풍조를 비판하는(Stockwell and Reinders 2019) 연구도 있다. 비판하는 입장의 연구는 테크놀로지를 수업에 적용하고 효과성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동기, 학습자의 자율성, 교수자의 심리, 교수법의 측면에서 면밀히 고려해야 할 측면들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지적은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영어교육의 현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습자의 동기와 탈동기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자발적 선택의 온라인 교육의 형태인 사이버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2021년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COVID-19 상황에서의 비자발적인 전면적 온라인 교육을 경험한 2020년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지는 못하다. 동기는 학습자 측면의 연구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교수자의 관점을 담은 연구가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교수자의 관점에서 이러닝에 대한 정서적 측면을 분석한 연구(박선호, 최희경 2020)는 아직까지는 국-내외적으로 극히 소수이다. 비자발적으로 온라인 테크놀로지를 대학 수업에서 전면적으로 사용해야 했던 오프라인 교수자들의 2020년의 수업 경험을 연구한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미처 생각해 보지 않았던 온라인 교육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다.

2.2. 영어 교수자의 감정 노동

외국어 교사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연관된 감정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감정 노동이란 Hochschild (1983)에 의해 정의된 개념으로, 직업과 연관된 상황에서 개인이 표현해야 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감정적 노력의 분량을 일컫는 용어이다. 감정 노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서비스 전문직을 대상으로 심리학이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수행되어 왔으나 최근 교육 분야로도 확장되었다(Acheson, Taylor and Luna 2016). 교사가 수행하는 감정 노동은 교사가 가지고 있는 보살피는 가르침에 대한 직업적이며 철학적인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Isenbargar and Zembylas 2006) 교사의 실존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Acheson 등은(2016) 미국 농촌지역의 외국어 교사의 감정 노동을 탐구하고 교사들이 외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과도한 감정 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감정 노동은 교사의 감정 소모 및 탈진, 그리고 교사로서의 효능감을 상실시키고, 결국 교직을 떠나고 싶은 상태로 만든다고 하며, 미국사회에서 외국어 교사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 맥락에서 외국어 교사의 감정 노동에 대해 수행된 연구로, King(2015)과 Cowie(2011)는 일본의 영어 교수자에게 부과되는 감정표현의 암묵적 기준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이러한 기준이 교수가 실천하는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조사했다. 이들의 연구는 작은 규모의 탐색적 연구로 수행되었으나 교사들의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고 추후 교사 교육에 응용될 수 있는 실증적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 외국어 교사의 감정 노동에 대한 연구는 영어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지원과 김태영(2018)은 영어 식민주의에 바탕을 둔 원어민 우월주의가 영어 교사의 감정 노동을 야기시키고 결과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교육 풍토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였다. Kim과 Kim(2018)은 한국의 영어 사교육에서 종사하는 교사들이 교육 기관의 관료적인 리더십, 정형화된 커리큘럼과 입시 중심의 수업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민원 등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 노동을 경험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김태영(2018)은 교사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학생들 앞에서 드러내 보이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체면 개념과 결부되어 부적절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교사로서 보여야 할 품위나 덕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감정노동을 과도하게 수행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교사들이 수행하는 감정 노동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원인을 찾아보고, 교육실천과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이다. 교사의 감정 노동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맥락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오프라인 교실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의 감정 노동의 연구에 비해 온라인 교실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한 연구는 더욱 찾기 힘들다. 특수한 위기 상황이 가져온 일상화된 온라인 교육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사의 감정을 이해한다면 향후 일상적 온라인 및 오프라인 영어 수업에서의 교사의 감정 노동에 관한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3. 외국어 교수자의 교사 면역성

교사 면역성이란 스트레스가 많은 교수 환경 내의 문제나 장애 상황에 대처하며 발달되는 심리적 방어 기제를 의미한다(Hiver and Dörnyei 2017). Hiver(2015)는 한국 영어 교사들이 척박한 환경적 장애 요소들을 극복하고 놀랍도록 성실하게 교직을 수행하면서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현상을 연구하면서 처음으로 교사 면역성이라는 개념을 도출하였다. 한국 영어 교사들이 신념 체계가 흔들리는 수많은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교사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덧입게 되는지에 대해 역동적 시스템(Dynamic System Theory, DST)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DST는 사회현상의 비선형적 변화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론으로, Larsen-Freeman(1997)이 제2언어 발달이 역동적 과정이라고 언급한 이후로 SLA분야에서 상당한 반향을 얻었다(Jang 2016). 역동적 시스템은 서로 연결된 구성 개체들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비선형적으로 발달하는 시스템으로써 초기 조건에 민감하며 자기 조직(self-organization)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Larsen-Freeman and Cameron 2008)고 한다. Dörnyei(2014)는 이러한 DST관점을 적용하여 교사와 학생을 각각의 역동적 시스템으로 보는 연구가 제2언어 동기 분야에서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고 한다. Hiver(2015)는 외국어 교사 면역성은 생산적이거나 혹은 역생산적인 두 개의 상반된 성질로 발달될 수 있으며 촉발(Trigger), 연결(Linking), 재배열(Realignment), 안정화(Stabilization)의 네 단계 과정을 거쳐 발달된다고 설명하였다. Hiver와 Dörnyei(2017)는 생물학적 면역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비유로 들어, 마치 유기체가 환경적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답을 찾고, 자기 내부의 구조를 재배열시키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새로운 내성을 지닌 체계로 거듭나는 것처럼 교사들을 교직에서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만약 교사가 방법상의 변화나 혁신에 저항하거나 또는 완강하고 보수적인 관습에 매이면 부정적인 면역성으로 귀결되는 잠재적 위험성도 있다. 교실이라는 사회적 상황에서 외국어 교수자의 심리적, 감정적, 인지적 기능은 교사 면역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검증 연구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다(Hiver 2017).

Hiver(2015, 2017)가 한국 맥락에서 교사 면역성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고 검증했다면, 이후 연구자들은 이란 맥락에서 유사한 개념을 검증하였다(Noughabi, Amirian, Adel and Zareian 2020, Rahmati, Sadeghi and Ghaderi, 2019). Rahmati 등은(2019) 이란 교사 면역성 발달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들은 교사의 낮은 자신감, 학생들의 탈동기, 낮은 수입, 제한적인 교육 시설, 부족한 수업 시간, 부모의 기대와 영어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인하여 이란 영어 교사들의 부적응적인 면역성이 발달된다고 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Noughabi 등은(2020) 390명의 이란 경력 영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율성, 감정, 참여가 면역성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라고 제시하였다.

교사 면역성에 관한 일련의 연구 결과는 외국어 교사의 적응력, 변화에 대한 개방성, 심리적 안녕, 목적 의식, 학습자의 배움에 헌신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까지 교사 면역성에 관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건강한 면역성이 발달된 교사는 자신에게 발생한 문제를 정확한 방식으로 해결하며, 이전 경험을 토대로 누적적인 발전을 하고,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옵션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적응된 면역성을 지닌 교사는 문제 발생시 자기 방어적이며, 변화를 거부하고, 수업에 냉소적이고 완전히 무관심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 면역성(Hiver 2015, 2017, Hiver and Dörnyei 2017)은 아직까지 다양한 맥락과 상황에서의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 COVID-19 이후 비자발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이뤄진 2020년과 같은 상황은 영어 교사들의 교육 실천과정에 전대미문의 문제를 던져 주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교사들이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살펴본다면 교사 면역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020년 COVID-19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교수자 관점에서는 비자발적으로 전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 1) 어떤 문제를 접하게 되었는가?
- 2) 어떤 감정을 경험했는가?
- 3)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가?
- 4) 해결의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3.1 연구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대학에서 영어를 담당하는 교수자로서 2020년 1학기 와 2학기 모두를 전면적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했던 교원으로 한정하였다. 두 학기를 모두 경험한 교원으로 대상을 제한한 이유는 첫째, 2020년 1학기에 갑자기 시행되었던 전면적 비대면 수업의 경험이 동일한 교수자가 2학기에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으리라 예상되었기 때문이었고, 둘째, 일 년이라는 기간이라야 한 개인의 생각과 태도의 변화를 관찰 또는 인식할 수 있을 만큼의 합리적인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처음 접하는 상황에서의 부정적 감정, 좌절감까지도 공유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찾기 위해서 연구자는 평소 정서적으로 교감을 나누고 서로의 수업에 대한 조언을 종종 나누었던 서울 소재 선배 및 동료 교수자 4인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참여자 번호	연령/성별	2020년 이전	2020년 이전	담당 학교	담당 영어교과
		오프라인 교육 경력	온라인 교육 경력		
참여자1	50대 중반 여성	20년 이상	없음	4년제대학	전공영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라이팅)
참여자2	40대 초반 여성	5-6년	없음	2-3년제 전문대학	전공영어 (비즈니스회화, 비즈니스 문서작성)
참여자3	30대 초반 여성	2년	없음	2-3년제 전문대학	전공영어 (비즈니스 회화) 교양영어
참여자4	30대 후반 여성	없음	없음	2-3년제 전문대학	전공영어 (비즈니스회화, 사무영어)

연구 참여자들이 진행한 온라인 영어 수업 방식은, 표 2와 같이, 교수자가 제작한 강의 동영상과 강의 자료가 일정한 교육 플랫폼에 탑재되고, 교수자-학습자 간 최소한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자 1은 동영상 강의와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병행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수자들의 수업 방식은 각 대학교의 온라인 수업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교측의 뚜렷한 지침을 언급한 교수자는 없었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온라인 수업 형태

참여자 1	참여자 2	참여자 3	참여자 4
녹화 비디오 강의 실시간 온라인 (Zoom) 강의 상호작용 학습활동	녹화 비디오 강의 상호작용 학습활동	녹화 비디오 강의 상호작용 학습활동	녹화 비디오 강의 상호작용 학습활동

3.2. 자료수집

2020년 12월 말경부터 2021년 1월 중순까지 약 3주에 걸쳐 수집하였다. 면담이 진행되었던 시기에 국내의 COVID-19의 확산 상황이 악화되어 모든 면담은 화상 회의 프로그램인 Zoom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 졌으며 연구 참여자 별로 60분 이상 소요되었다. 정확한 자료의 분석을 위해 참여자의 동의하에 화상 인터뷰를 녹화 기록하였고 이후 연구에 미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카카오톡과 이메일 교신을 통하여 자료를 보완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4명 중 3명으로부터 담당하였던 과목의 수업 계획서를 제공받아서 수업 특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었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익명성과 면담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였고, 반구조화 면담을 하여 참여자가 자신의 수업 경험을 보다 편안하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반구조화 면담을 위한 질문은 부록에 포함하였다.

3.3. 자료분석

연구자는 우선 각 참여자의 인터뷰 녹화 영상을 전사한 뒤, 자료의 반복적 읽기를 통해 연구 질문과 연관된 주제가 드러나는 단락을 세그먼트로 나누었다. 각 참여자 별 세그먼트가 된 자료는 질적자료 분석도구인 NVivo를 사용해서 코딩하였다. 코딩에 앞서 자료를 분석적으로 읽는 과정 중에 생겨나는 통찰을 메모하여 두고 세그먼트별 코딩 과정 중에 연구자가 가졌던 초기의 개념들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세그먼트 안에서 다중의 개념 코드가 생성되기도 하였고, 여러 개의 세그먼트가 하나의 코드를 생성하기도 하였다.

2차 코딩으로 연구 참여자 별로 생성된 초기 코드들 중에서 의미의 중복성을 지닌 코드를 통합, 감환하는 과정으로 속성이 유사한 개념들을 묶어서 범주화 하였다. 2차 코딩은 김주혜(2012)와 도재우(2020)의 분류를 따랐고, 새로운 개념이 도출된 경우에는 자료에서 드러나는 반복적이고 핵심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새롭게 코딩하였다.

2차 코딩부터는 어느 범주가 더 상위의 범주인 지 판단해 가며 범주화 과정 중에 도출된 개념 간의 차원을 고려하였다. NVivo로 코딩을 해 나가면, 연구자가 생성한 초기의 개념 코드가 최상위의 개념 코드로 잡히고 각 코드에 대해 언급된 데이터 세그먼트의 출현 빈도가 동시에 기록되므로 연구자는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도출된 범주 간의 상하위의 개념 위계를 잡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 세그먼트들이 각각의 코드로 구분되고, 각각의 코드는 상위와 하위의 트리구조로 개념의 틀을 잡아갈 수 있다. NVivo에서는 각 코드에 대해 언급된 데이터 세그먼트의 출현 빈도가 동시에 기록된다. 이 때 최상위 개념 코드의 언급수가 하위 코드 언급수의 총합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데, 이것은 연구자가 최초로 만든 개념 코드가 최상위 코드가 되고 하위 코드 중 내용적으로 세분화되지 않은 일부 빈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2차 코딩을 통해 형성된 개념의 트리구조를 보면서, 3차 코딩의 과정을 통해서 차원이 다른 범주들을 통합하고 범주간의 관계를 통해서 주제를 발견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 생성된 코드간의 관계와 패턴을 발견하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NVivo의 Matrix분석을 실시하였다. Matrix분석은 행과 열 간에 교차적 관계를 찾아내는 방법으로서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정 코드간의 연관성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 코드간에 연관 관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확인하고 논리적 연관성에 대해서 추론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4. 연구결과

비자발적인 온라인 수업이 1년간 지속되면서 참여자들은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게 되었고,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교수자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은 Nvivo를 이용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최상위 코드들을 연결시킨 관계도로, 차원이 다른 범주들을 통합하고 범주간의 관계를 통해서 주제를 발견한 3차 코딩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그림 1과 같이, 교수자는 온라인 수업의 문제에 직면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며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응하면서 내·외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같은 교수자의 내·외적 변화는 다시 교수자의 감정과 순환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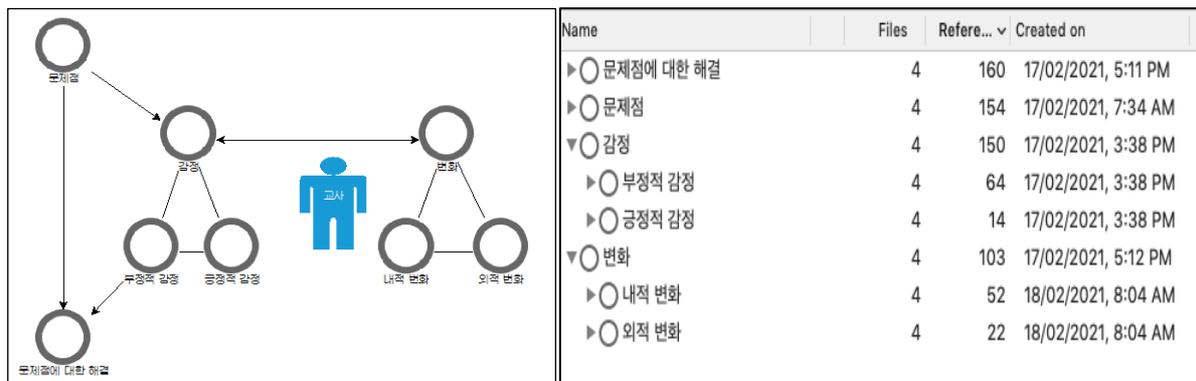


그림 1. 최상위 코드 관계도를 통해서 본 2020년 교수자의 온라인 수업 경험

4.1 비자발적인 전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며 경험한 문제점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 2차 코딩(축코딩)의 결과를 트리구조화하여 2020년 교수자들이 어떤 문제점을 경험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와 같이, 오프라인 중심의 교육을 담당해 오던 대학의 교수자들이 COVID-19 긴급 상황 속에서 비자발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며 경험한 문제점은 크게 조직적 측면과 교사 개인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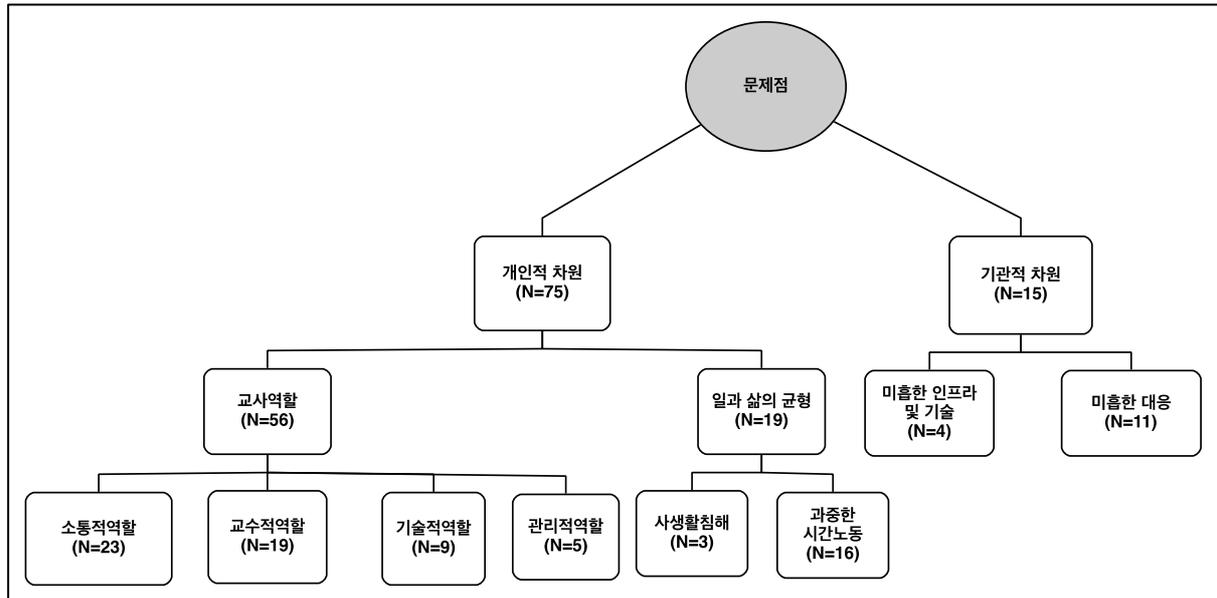


그림 2 비자발적인 온라인 교수로 경험한 문제점 및 언급 빈도

4.1.1. 교수자 개인적 차원에서의 문제

교수자 개인적 차원의 문제는 교수자로서의 역할 관련 문제와 일과 삶의 균형 관련 문제로 구분할 수 있었다.

A. 교수자의 역할관련 문제

김주혜(2012)는 일반적 집합 교육 교수자보다 이러닝 교수자는 교수적 역할, 관리적 역할, 사회적 역할¹, 기술적 역할로 세분되는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다. 김주혜(2012)의 교수자의 역할 구분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류한 결과, 그림2와 같은 언급빈도로 교수자의 역할 관련 문제점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사회적 역할에 관련된 문제로 ‘소통’을 가장 빈번하게 언급하였다(N = 23). 먼대면 상황과 달리 눈맞춤, 고개끄덕임 등과 같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은 답답함을 언급하고 있었다.

애들을 대할 때, 애들이 머리꼭지가 보인다든지 턱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화면에 애가 또렷이 안보인다든지 하면, 그런 걸 내가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답답하고 ... (참여자 1)

아무래도 사람이 없이 그냥 나 혼자 수업을 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참여자 4)

¹ 김주혜(2012)가 정의한 사회적 역할과 동일한 의미로 본 연구 참여자들은 소통이라는 표현을 썼으므로, 교수자의 소통적 역할을 사회적 역할로 볼 수 있다.

교수적 역할 문제로는 오프라인과 달리 수업 준비와 진행을 혼자 하는 느낌을 가진다는 점(N = 19)을 언급하였다. 온라인 수업의 경우 혼자 일방적으로 준비한다는 느낌을 더 많이 느끼고 답답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제가 학생들의 수준을 알 수가 없는 데, 제가 일괄적으로 강의 자료나 강의에 대한 영상 부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참여자2)

온라인으로 회화를 장려하고 요구하는 수업을 교수자 혼자 이끌어 나가야 하는 점이 많이 버거웠습니다. (참여자 3)

기술적 역할관련의 문제점(N = 9)으로는 수업 자료 제작을 위한 기술지식 부족, 필요한 기술적 지식을 외부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학습해야 했던 상황, 그리고 수업에 사용되는 온라인 도구 자체의 기술적 제한점을 언급하였다.

SMS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모바일 어플에서(LMS 알림사항이) 바로 바로 떠요. 근데 안좋은 점은 쪽지만 왔다는 알림은 없어요. 그래서 일 학기때는 한시간에 한 번씩 들어갔어요. (참여자 3)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자체가 어려웠는데 ... 사실 학교에서 교수자에게 맡겨 두었지 ... 결국 혼자서 찾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참여자 4)

교수자의 학습 관리자 역할과 관련된 문제점(N = 5)으로는 학생들의 학습 태도 개선 및 동기를 제대로 부여하기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학습자의 반응을 살필 수 있는 보다 다양한 기술의 구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온라인 영상을 하면 애들이 그것을 잘 이해했는지, 아이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알아야 되는데 ... 그냥 영상 틀어 놓고, 뭐 하는 지 모르거든요. (참여자 2)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본인의 영어를 창피해하고 귀찮아 하며 끝까지 미루어 제출하는 등의 이유로 더 구체적인 피드백을 줄 수 없는 점도 많이 아쉬웠습니다. (참여자 3)

B. 교수자의 일과 삶의 균형관련 문제

교수자의 개인적 측면에서 교수자의 역할 이외에 교수자의 일과 삶의 균형관련 문제가 언급되었다(N=19). 과중한 시간 노동으로 인해 개인의 삶이 침해된다는 언급빈도가 가장 높았다(N=16).

수업시간에 남아서 하나 하나 피드백 ... 내가 전화로 했어요. 시간이 무지 걸려요(참여자 1)

...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새벽3시까지 피드백을 해 주고, 그렇게 한 거죠. (참여자 4)

교수자 일과 삶의 균형관련 문제점의 중 빈도 수는 작지만 사생활 침해와 관한 문제도 언급되었다.

학교에서 줌 녹화본을 어디 코어에 올려서 애들이 볼 수 있게 해주라고, 근데 보니까 애들의 얼굴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참여자 1)

주변동료 보니까 상중에 [학생] 카톡이 온다거나 새벽에 카톡이 와서 애가 깬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참여자 3)

4.1.2. 기관적 차원에서의 문제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기관적 차원에서 온라인 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와 기술 미비점 그리고 불분명하고 미숙한 대응을 문제로 보고 있었다.

A. 미흡한 인프라 및 기술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온라인 인프라 및 온라인 수업 도구가 갖고 있던 기술적 미비점이 온라인 수업이 전면화 되면서 지적되었다(N = 4).

사이버캠퍼스가 맨날 다운이에요. 슬로우 하고요. (참여자 1)

완전한 e-class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출결을 제가 manually 했었고요. (참여자 2)

B. 기관의 미흡한 대응

교수자들은 미비한 인프라 및 기술보다 오히려 위기에 대응하는 학교 기관의 미흡함을 더 빈번히 문제점으로 언급하였다(N = 11). 교수자들은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기관의 지침을 기대하고 있었다.

일괄적인 지침이라든가 분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고, 중간 중간에 변경되는 것 때문에 시간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들었어요. (참여자 2)

이런 것도 사실 학교에서 교수자에게 맡겨 두었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결국 혼자서 찾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참여자 4)

4.2 갑작스런 온라인 교수로 인한 감정노동: 부정적 감정의 발생

참여자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떠한 문제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지 파악해 보았다. 표 3와 같이 부정적 감정은 주로 교수자의 역할관련 문제점과 관련되어 가장 빈번(N = 11)하게 나타났다. 오프라인 수업에 적합한 기존의 수업 방식을 온라인에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데서 야기되는 좌절감,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수업을 해야 하는 미안함, 온라인 수업을 잘

해내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학생들을 제대로 알기 힘든 답답함 등의 부정적 감정이 드러났다. 그 외에 조직적 측면에서 온라인 수업 초기 조직의 불분명하고 미비한 대응에 대한 부정적 감정도 나타났다(N = 4).

표 3. 인지된 문제점 관련 부정적 감정의 언급 빈도

상위코드	중간코드	하위코드
개인적 차원 (N = 11)	교사역할 (N = 11)	소통적 역할 (N = 4)
		관리적 역할 (N = 1)
기관적 차원(N = 4)	미흡한 인프라 및 기술 (N = 0)	교수적 역할 (N = 6)
		기술적 역할 (N = 0)
		사생활 침해 (N = 0)
	일과 삶의 균형 (N = 1)	과중한 시간 노동 (N = 1)
	미흡한 대응 (N = 4)	

4.2.1 교수자 개인적 차원 언급에 나타난 부정적 감정

A. 교수자의 역할관련 언급에 나타난 부정적 감정

연구 참여자들은 갑작스럽게 온라인 교수자가 되면서 각각의 문제점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림3처럼 데이터로부터 부정적 감정관련 단어들이 도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걱정, 괴로움, 답답함, 부끄러움, 좌절감, 안쓰러움, 미안함, 거부감, 자책감, 자신없음’ ‘힘들었다’ ‘쉽지 않다’ 등으로 부정적 감정을 언급하고 있었다.



그림3. 온라인 교수자의 부정적 감정

연구 참여자들은 교수자 역할과 관련하여 부정적 감정을 가장 빈번하게 언급하였다. 학생들과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포함한 익숙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현실적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하며 취약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능력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았고, 처음에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뭘했던 사람인가? 내가 도대체 뭘 아는 게 있는가? 왜냐하면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게,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니까, 내가 아는 게 없는 거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그 자괴감이 ... 이 모든게 다 2020년 1학기 첫 사분의 일분기예요. (참여자 1)

당시에는 화가 나기 보다는 잘 가르쳐주지 못하고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참여자 3)

B. 교수자의 일과 삶의 균형관련 언급에 나타난 부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은 일과 삶의 균형 측면의 문제점에서도 나타났다.

수많은 시간을 들여 일주일 내내 수업 준비를 하고 피드백을 주는 생활을 첫 학기 동안 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 제가 하루 종일 준비만 했어요. (참여자 3)

4.2.2 기관적 차원에 관한 언급에 나타난 부정적 감정

교수자들은 전면적인 온라인 수업이 시행된 초기부터 학교 기관으로부터 전달받는 불분명하거나 수시로 변경되는 지침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언급하였다.

일단 학교에다 연락해서 이거 어때요 저때요 물어보면, 그들이 답이 없었고, 언제나 뒷북을 쳤어요. (참여자 1)

1학기 때는, 이게 서로 혼란이 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변경도 많고, 제가 막 시스템도 숙지를 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짜증?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참여자 2)

4.3 문제해결 방법

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시도했는지에 대한 언급 빈도를 살펴보면 표4 와 같다. 모든 참여자가 가장 빈번하게 언급한 해결 방식으로는 소통에 집중으로 나타났고(N=95) 다음으로는 교수 방식 개선(N=8)과 새로운 상황에 적응(N=8)이 동등한 빈도로 언급되었다.

표 4. 대면한 문제에 대한 교사의 해결 방식 언급 빈도

상위코드	중간코드	하위코드
소통에 집중 (N = 95)	소통 방식 개선 (N = 27)	새로운 소통 채널 추가 (N = 5) 기존 소통 채널의 최대 활용 (N = 9)
	소통량의 증대 (N = 26)	
교수 방식 개선 (N = 8)		
새로운 상황에 적응 (N = 8)		
일화적 지식의 활용 (N = 3)		

4.3.1 소통에 집중: 소통 방식 개선 및 소통량 증대

참여자들은 소통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데(N = 95), 소통에 대한 해결법으로 소통 방식 개선(N = 27), 소통량을 증대하는 방식(N = 26)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² 학생들과 오프라인 소통에 좀 더 친숙했던 교수자들이 온라인 소통 방식을 고민하고, 교수자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학생의 불안감에 공감하는 소통 등 소통 방식의 개선 노력을 언급하였다. 또한 설명의 양과 빈도의 증가, 새로운 소통 채널 추가, 기존 소통 채널의 최대 활용 등이 소통량을 증대하는 구체적 방식을 언급하였다.

내가 카톡 채널도 열고 카톡으로 뭐 질문 하나 뜨고 하면 바로 바로 답해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나를 자꾸 쳐다봐 주고 ... 애들한테 ... 겸허하게, '나는 ... 이 상황이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돕고자 ... 아이디어를 내 주었어요. (참여자 1)

내가 교수자로서 온라인에 있지만 네가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던 것 같아요 ... 제가 상황에 따라서 피드백을 수시로 했던 거 같아요. 제가 여유가 있을 때 보고 피드백을 하고, 빨리 올린 학생들은 빨리 빨리 그냥 해 줬고. (참여자 4)

4.3.2 주어진 상황에 지속적 대응

갑자기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전환되고 교수자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든 상황에서 교수자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지 파악한 결과, 초기 대응은 변화된 상황이 요구하는 바를 무작정 감내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에는] 주어진 틀에 맞춰서, 그냥 뭐랄까, 숙제하듯이 하는거죠. (참여자 1)

[초기에는] 그냥 더 열심히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참여자 3)

그러나 비대면 수업이 한 학기가 넘게 지속되면서 참여자들은 점차 단순한 생존 방식이 아닌 개선 방식을 모색하고 있었다. 오프라인에서는 할 수 있었지만 온라인에 적용할 수 없었던 교수법을 개선시키거나, 수업 설계에 조정을 가하는 등 장기화되어가는 온라인 상황에서 단지 생존하는 방식만이 아닌 번성하고자 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1회는 동영상 올려주고, 주 2회는 만나서 뭔가 학생들이 만나서 과제를 해결하고, 답을 찾고, 대화를 나랑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내가 올려준 녹화를 보고 생각을 했다가 와서 과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방식으로 ... 결국 일학기 끝자락으로 갈수록 그 체제가 굳어졌어요. (참여자 1)

² 소통에 집중하는 것을 문제의 해결 방식으로 언급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서 상위 카테고리에만 포함되는 언급들이 있기 때문에 하위 코드에 관한 언급빈도의 총합이 상위 코드의 언급빈도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레슨 플랜도 다시 짜고, 학생과의 인터랙션이 없다보니까, 내가 그만큼 줬을 때 학생들은 얼마나 따라올 수 있는지? 이런 걸 분석적으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 온라인 강의에서는 그걸 한 번에 주면 아이들이 그걸 잊어버릴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 분배를 좀 해서 질문이 오자마자 스크린 캡처를 해놔요. (참여자 3)

4.4 해결의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

참여자들은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표 5에서 보듯이 교수자의 내적으로는 성찰적 태도(N = 28)를 지니게 되었고, 적응적 발전(N = 20)이 이루어졌으며,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에 대한 개방성(N = 3)을 가지게 되었음을 언급하였다. 교수자의 외부적 변화로는 상황의 개선(N = 11)과 학생들의 반응의 변화(N = 11)를 언급하였다.

표 5. 2020년 전면 온라인 수업 시 나타난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 및 언급 빈도

상위코드	하위코드	언급 빈도
내적 변화 (N = 52)	성찰적 태도	(N = 28)
	적응성이 있는 발전	(N = 20)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에 대한 개방성	(N = 3)
외적 변화 (N = 22)	상황의 개선	(N = 11)
	학생들의 반응의 변화	(N = 11)

4.4.1 교수자의 내적 변화

참여자들은 교육자로서 자기만의 고유한 철학을 가지고 수업을 성찰하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고자 하는 내적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낮은 상황에 적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온라인 교수자로서의 효율성이 증대하는 교수 역할 측면에서의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교수자들은 새 학기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다른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던 수업 도구를 써 보면서 새로운 방식에 도전하고자 변화하고 있었다.

confidence는 결국 교육 맥락 속에서 당사자들 간에 신뢰가 기반이 되어 되는데, 그 confidence를 좀먹는 게 바로 그 신뢰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내 생각에는 이게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teacher communication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참여자 1)

실시간 수업을 한다고 ... 저는 이제는 진짜 수업을 해 보자라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된 거 같아요. ... '이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한 것 같아요. (참여자 3)

4.4.2. 교수자 외적 변화

외부적 변화는 전체적인 상황의 개선과 학생의 변화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학교의 시스템같은 것들이 많이 안정화가 되면서 교수자나 학습자 위주로 시스템을 조금 더

customize 해 준 것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더 편하고 몸이 익숙해졌어요. (참여자 2)

또한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많이 힘든 상황이기에 가끔 수업을 열심히 듣고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질문과 함께 수업을 잘 듣고 있다는 등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런 메일을 통해 더 열심히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참여자 3)

이 같은 외적 변화는 교수자의 내적 변화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 변화가 있기까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교수자의 내부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2020년 COVID-19 팬데믹 위기의 상황에서 경험이나 준비없이 갑작스럽게 온라인 수업을 담당하게 된 교수자들이 어떤 문제를 경험하며, 어떠한 감정을 느끼며, 어떻게 변화하는지 질적연구로 탐색해 보았다.

5.1. 전면 비대면 수업 1년 간 경험한 문제점

참여자들은 크게 개인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개인적 차원에서 교수자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었다. 교수자 역할을 '교수적(pedagogical)' 역할, '관리적(manegerial)' 역할, '사회적(social)' 역할, '기술적(technical)' 역할(김주혜 2012)로 세분화해 보았을 때, 소통 문제는 교수자의 사회적 역할 관련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익숙하지 않은 상황일수록 소통량을 증대하고 다양한 소통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모르는 교수자나 학습자 모두에게 소통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온라인 교수 상황에 필요한 소통법, 특히 학습자와의 원활한 온라인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교수적(pedagogical)' 역할의 문제점으로 교수자는 혼자 일방적으로 준비한다는 느낌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온라인 수업 시행 이전에 학습자의 요구 분석, 수준 파악 등 소통할 수 있는 단계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을 위한 소통이 교과 계획 이전에라도 필요한 경우라면 교수자와 학습자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채널이 마련되어 교수자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낮출 필요가 있다. '기술적 역할'의 문제점으로 교수자의 기술 지식 부족, 필요한 기술적 지식을 혼자서 학습해야 했던 상황, 그리고 온라인 도구 자체의 기술적 제한점을 언급하였다. 능숙한 교수자도 기술적 지식은 부족할 수 있다. 기술적 지식이 부족한 교수자들이 어려움을 혼자 해결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기관 차원에서 또는 숙련된 기술 경험자가 교수자의 고충을 바로바로 수집하여 선제적으로 또는 진행 중 체계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관리적 역할'의 문제점으로는 교수자가 학생들의 학습 태도 개선 및 동기를 제대로 부여하기 어려움이 언급되었다. 2020년도의 비대면 수업은 학습자 입장에서 비자발적인 선택이었으므로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졌을 것이라 판단된다. 비자발적이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학습자가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학습자 심리를 파악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동영상을 보고 있을 때 수시로 동영상 학습을 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을 누르게 하거나, 팝업 메뉴로 동영상 부분부분 본인의 이해도를 표시하게 하여, 교수자가 학습자들의 동영상 학습 진행 상황을 한 눈에 훑어볼 수 있고, 동영상 학습 진행 상황 점검창에서 학습자에게 개별적으로 전체적으로 쉽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방법 마련 또한 필요하다.

교수자 개인적 측면에서 교수자의 일과 삶의 균형 관련 문제도 언급되었다. 온라인 수업에 과중한 시간이 요구되어 개인의 삶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교수자의 시간이 과도하게 요구되는 작업이 무엇인 지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행복한 교수자가 행복한 수업을 만들 수 있다.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행복한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교수자의 일과 삶의 균형과 관련하여 개인적 기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기관적 차원에서의 문제점으로 온라인 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와 기술의 부족과 불분명하고 미숙한 기관의 대응을 언급하였다.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기관이나 개인의 온라인 기술활용을 위한 인프라 수준, 온라인 수업 도구의 불편한 점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노출된 만큼, 기관이나 온라인 도구 개발자는 교수자의 피드백을 적극 수렴하여 신속하게 인프라나 도구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2020년의 비대면 상황이 기관이나 온라인 도구 개발자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시기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문제점 수집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수자들은 위기에 대응하는 학교 기관의 미흡함을 더 빈번히 문제점으로 언급하였는데, 교수자들은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기관의 지침을 기대하고 있었다. 도재우(2020)도 오프라인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할 때 학교측의 미흡한 수업 지원이 장애가 된다고 하였다. 기관은 필요한 내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안내하고, 구성원의 피드백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상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신속하고 명확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미흡한 대응은 위기 관리 능력의 부족 또는 소통 부족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상황의 급속한 변화 때문에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변경이 있을 시에는 변경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소통뿐 아니라 기관과 구성원 간에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5.2 문제 상황 속에 드러난 부정적 감정

연구 참여자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떠한 문제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지 파악해 본 결과, 부정적 감정은 교사의 개인적 차원과 기관적 차원 문제 모두에서 나타났다. 개인적 차원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교수적 역할과 관련하여 부정적 감정을 가장 빈번하게 언급하였다. 오프라인 수업에서 본인이 잘할 수 있었던 수업 방식이 온라인으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에 야기되는 좌절감,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수업을 해야 하는 미안함, 온라인 수업을 잘 해내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학생들을 제대로 알기 힘든 답답함 등의 부정적 감정이 드러났다. 학생들과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 익숙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하며 취약함을 느끼고 있었다. 교수자가 부정적 감정을 가질 때 교수자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을 것이다. 교수자의 역할에 관련된 이러한 부정적 감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오프라인 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면적 전환이 교수자에게는 하나의 위기였던 만큼,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감정에 대한 연구가 더욱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 차원의 부정적 감정은 교수자의 일과 삶의 균형 측면의 문제점에서도 나타났다. COVID-19 이후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데 이것은 온라인 수업의 전반적 과정에 대한

교사의 책임의 개인화가 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정바울, 장유정 2020)고 한다. 온라인 수업이 수반하는 시간 소요 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한 개 이상의 분반이 제공되는 수업의 경우 교수자들이 함께 팀티칭 등을 시도하거나, 동일한 과목인 경우 이웃 대학과 연계하여 함께 교과를 제공하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다.

기관적 차원으로 교수자들은 전면적인 온라인 수업이 시행된 초기부터 학교 기관으로부터 전달받는 불분명하거나 수시로 변경되는 지침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언급하였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완벽한 대응이 쉽지는 않겠지만, 기관은 위기 대응팀 중 교수-학습 전문가 팀을 만들어 보다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선제적 안내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3 전면 비대면 수업 1년간 나타난 변화

대학 교수자들이 전면적 온라인 수업을 경험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언급한 것은 소통의 강화였다. 익숙하지 않은 상황일수록 소통량을 증대하고 다양한 소통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어떻게 소통해야 할 지 모르는 교수자나 학습자 모두에게 소통 교육을 제공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전례 없는 비대면 교육 상황 1년 간, 외부적으로 상황자체의 개선, 학생들의 변화도 있었지만, 교수자 내적으로 성찰적 태도, 적응적 발전,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에 대한 개방성이 변화로 언급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언급 곳곳에서 문제와 해결 방식을 연결하는 교사들의 성찰적인 실천(Rahmati, Sadeghi and Ghaderi 2019)을 볼 수 있었다. 교수자들은 자기 자신, 조직, 맥락의 요인으로 기인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방법을 찾고 노력하면서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해결 방식을 찾으며, 일상의 평형상태를 찾고 있었다. 교수자들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성공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교수자의 생산적인 면역성이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적 면역성은 부적응 면역성과 뚜렷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오직 정도의 차이일 뿐이므로(Rahmati, Sadeghi and Ghaderi 2019), 교사가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주체적으로 노력하더라도 기관이나 제도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지원하여 교수자가 현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속적인 생산적 면역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여자들은 모두 온라인 수업 방식이 앞으로 영어 수업에 상시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을 보고 있었다. 온라인 교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훈련 및 교육에 대한 기대를 언급하였다. 온라인 교수자로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교수자의 심리 증진 및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교수 역량을 비롯해 기술, 소통 역량을 개발하고 싶은 교수자를 위해 다양한 단계의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상시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이나 훈련의 차원과는 별도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을 함께 논의하고 연구할 수 있는 교수 공동체 모임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5.4 결론

COVID-19의 전면적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와 연관된 교수자의 부정적 감정의 경험은 대학의 영어 교수자들이 처한 2020년의 척박한 교수 환경을 부분적으로나마 설명하고 있다. 다만 그들이 이런 환경속에서 가르치는 일에서 전념하며 성장과 변화의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려면 이론적 이해의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결과 논의에서 볼 수 있었던듯이, 연구 참여자들은 교수 활동을 둘러싼 환경적 위험이

장기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자들이 직면한 문제점과 부정적 감정에 대해 고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해법을 찾아간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수자들은 초반에는 충격적인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인 혼란의 상태에서 불안하게 온라인 교육을 시작하였지만, 대면하는 문제점과 야기되는 부정적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적 상황에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때 교육적 성찰 과정과 변화된 태도는 물론 새로운 방식의 교육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가지게 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외국어 교사 면역성은 촉발(Trigger), 연결(Linking), 재배열(Realignment), 안정화(Stabilization)를 거쳐 발달되고 생산적인 형태와 부적응의 형태로 구분된다. 생산적 면역성은 외국어 교수자를 계속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부적응 면역성은 자기 방어적인 태도, 변화의 거부, 냉소, 무관심, 교직 이탈하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다(Hiver 2015, 2017; Hiver and Dörnyei, 2017). 본 연구의 결과로 조심스럽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참여자였던 대학의 영어 교수자들이 보여주었던 낮은 환경에 대한 적응성, 성찰적 태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에 대한 개방성은 생산적 면역성의 특성일 수 있다. 둘째, 교수자가 보여준 생산적인 면역성은 위기의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와 부정적 감정의 촉발(Trigger)로 대응책을 연결(Linking)하는 과정중에 일어난 사유나 행동에서의 재배열(Realignment)을 통해서였다. 다만 참여자들의 면역성이 얼마나 안정화(Stabilization)된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시 일어난 사람도 있고 여전히 일어서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competence로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 confidence를 가질 수 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1)

COVID-19 팬데믹은 교육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연구 보고서 발표 결과에 따르면, 대학 온라인 교육을 위한 지역별 지원센터, 대학 내 학습공동체 등의 원격수업 기반 구축과 원격수업 관련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있고, 이것은 장기화될 수 있는 비대면 수업에 대한 대비일 뿐 아니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이승환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전대미문의 혼란스러웠던 기간에 교수자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하였고, 어떤 감정을 느꼈으며, 어떻게 어려움을 헤쳐 나갔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였는지를 파악하는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소수의 참여자들의 인터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연구 참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2020년 교수자의 삶을 보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COVID-19 이후 온라인 교육에서 각 주체들의 목소리를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교수자들이 일 년 동안 여러 문제점에 봉착해서 어려운 감정을 느끼기도 했지만 끊임없이 적응하고 해결 방식을 모색하면서 자기만의 교육적 해법을 발견하고 변화, 발전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발전적 변화는 비단 교수자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학교와 학생들에게서 역시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교수자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학생이 온라인 교육의 문제를 인지하고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교수자의 발전적 변화는 교육자로서 개인적 차원의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2020년 위기의 교육 상황에서 외국어 교수자의 경험과 감정, 변화를 탐색해 보고 교사 면역성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해 보았다. 연구자는 연구의 과정을 통해서 교수자들의 삶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자 했고 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하고자 했다. 질적 사례 연구의 결과는

일반화될 수 없다는 연구 특성상 한계점을 지니지만, 2020년 비자발적 온라인 수업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영어교육과 연관된 교수자 측면의 이해를 돕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교수자의 경험뿐 아니라 비자발적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 교육 관리자의 경험 등 더 다양한 교육 구성원의 경험을 수집하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우리의 교육이 어떠한 변화에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면역성이 갖추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김남희(Kim, N.). 2019. 사이버대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화 연구(A study on English learning motivation and demotivation of cyber university students).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19(1), 129-140.
- 김주혜, 김영우, 배주경, 이의길(Kim, J., Y. Kim, J.-K. Pae and E. Lee). 2012. 영어과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개발 사례연구(A case study on English content development in cyber home learning: Focusing on the 5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영어어문교육>>(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18(4), 305-337.
- 김주혜(Kim, J.). 2007. 이러닝 구성요소에 근거한 영어 학습자의 정서적 측면 연구: 불안감을 중심으로(EFL learners' anxiety as an affective focus in the study of e-learning). <<영어교육연구>>(English Language Teaching) 19(2), 183-213.
- 김주혜(Kim, J.). 2012. 이러닝 영어 교수자의 역할 및 교수지원체제 개발연구(Role of English teachers and instructional support system in an e-learning environment). <<언어과학연구>>(The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63, 89-124.
- 김태영, 김은주, 김혜영(Kim, T.-Y., E. J. Kim and H. Kim). 2011. 온-오프라인 결합 교양영어 수강 대학생들의 학습동기 유형과 변화(Motivational types and transitions in students taking on-offline blended college English program). <<현대영어교육>>(Modern English Education) 12(1), 126-156.
- 김태영(Kim, T.-Y.). 2018. 영어 교사의 교수 동기, 탈동기, 감정 노동: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 주제별 분석(English teacher's teaching motivation, demotivation, and emotion labor: A thematic analysis focusing on journal articles). <<영어영문학연구>>(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4(3), 221-254.
- 김현숙, 박은영(Kim, H.-S. and E.-Y. Park). 2011. 사이버대학 관광영어 강좌의 학습자 요구분석과 수업설계(Needs analysis and class design for online tourism English instruction). <<영어어문교육>>(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17(2), 115-137.
- 김희진, 광정아(Kim, H. J. and J. Kwak). 2013. 이러닝 영어학습에서 페이스북을 활용한 보충학습 교수-학습 설계 및 효과성 연구(The development of a supplementary Facebook learning model at a cyber university). <<영어어문교육>>(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19(4), 237-260.
- 김희진, 이현구(Kim, H. J. and H.-G. Lee). 2011. 효과적인 블렌디드 러닝 수업운영 방식 연구(A

- study of effective blended learning method at an offline-based university).
 <<영어교과교육>>(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10(2), 85-114.
- 김희진, 허광(Kim, H. J. and K. Hur). 2016. 사이버대학 영어 수업에서 스마트 앱을 활용한 혼합 교수, 학습 방안 설계와 효과성 비교(A comparative study of the effects of implementing three different smartphone applications for English classes at a cyber universit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tudents' affective domains and learning attainment).
 <<멀티미디어언어교육>>(Multimedia Assisted Language Learning) 19(1), 86-113.
- 김희진(Kim, H. J.) 2018. 스마트 러닝을 혼합한 이러닝 영어 교육의 성취도 및 실재감 분석(An analysis of achievement and teaching presence in a blended learning environment: Smart learning at an online university).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8), 755-779.
- 김희진(Kim, H. J.). 2014.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함양을 위한 사이버대학 교수학습설계: e-PBL기반 “직무영어”를 중심으로(Teaching-learning methods of e-PBL based course for enhancing self-directed learning: Focusing on business English at cyber universities).
 <<외국어교육연구>>(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28(2), 407-428.
- 도미나, 김정렬(Do, M.-N. and J.-R. Kim). 2019.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영어교육연구의 통시적 분석(A diachronic analysis of researches on technology enhanced English education).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9), 1241-1266.
- 도재우(Do, J.-W.). 2020. 먼대면 수업의 온라인 수업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 장애물에 대한 탐색(An investigation of design constraints in the process of converting face-to-face course into online course). <<교육문화연구>>(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6(2), 153-173.
- 동아닷컴(Dong A. Com). 2020, April 23. 교수는 더 오래 준비하는데...학생들은 온라인 강의, 전달력 떨어져(Professors spending more time...college students being dissatisfied with on-line classes). Retrieved from <http://www.donga.com/news/View?gid=100772071&date=20200423>
- 박선호, 최희경(Park, S. H. and H. Choi). 2020. 코로나 19 시대의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초등영어교사들의 목소리(Voices of elementary English teachers on non-face-to-face online education in the era of COVID-19).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9(4), 273-295.
- 박은경(Park, E.). 2020.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교양영어 수업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감에 대한 인식 조사(Perception of learner anxiety towards online college English classes during COVID-19). <<멀티미디어언어교육>>(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3(3), 320-338.
- 신지원, 김태영(Shin, J. and T.-Y. Kim). 2018. 우리나라 영어 사교육 현장에 내재된 영어 식민주의: 초등 어학원의 사례(English colonialism inherent in South Korean private English education: A case of elementary English language institute).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4), 143-167.
- 이동주, 김미숙(Lee, D. J. and M. Kim). 2020.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학 온라인 원격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n the practices of online learning in the COVID-19 situation and future directions). <멀티미디어언어교육>(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3(3), 359-377.
- 이승환(Lee, S.). 2020, June 26. 필수가 된 원격수업, 개선해야 정착한다(Must-do on-line classes, must improve to survive). e-대학저널(*e-Deahak Journal*) Retrieved from <https://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650>
- 이정화, 김주혜, 조수근(Lee, J.-H., J.-H. Kim and S.-K. Cho). 2010. 이러닝 영어회화 수업의 상호작용적 교수-학습 전략(A study of interactive teaching-learning strategies of e-learning English conversation courses). <응용언어학>(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6(2), 51-83.
- 이현주(Lee, H.-J.). 2010. Vygotsky의 사회문화이론(Sociocultural Theory)과 테크놀로지 매개(Technology-mediated)의 영어교육(Vygotskian sociocultural theory and technology-mediated English learning). <교육연구>(Educational Research) 47, 23-55.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혁신센터(Ewha Womans University Office of Education Innovation). 2020. 1 학기 원격수업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Survey Results on On-line Classes in Spring Semester).
- 임선영, 김성연(Lim, S. Y. and S.-Y. Kim). 2004. 교양영어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이버대학 학습자 요구 분석(A needs analysis for developing English content for cyber university learners). <응용언어학>(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0(1), 155-178.
- 정바울, 장유정(Chung, B. and Y. Jang) 2020. Covid-19에 따른 디지털 기술의 부상과 교사 직무 변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An exploratory study on digital technologies and teachers' work in the Post Pandemic age). <교육정치학연구>(The Journal of Politics of Education) 27(4), 125-144.
- 조순정(Cho, S. J.). 2015. 사이버대학 영어청취 교과목 콘텐츠 개선을 위한 학습자 요구조사(A need analysis for improving English listening content in cyber university). <교양교육연구>(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9(3), 215-248.
- Acheson, K., J. Taylor and K. Luna. 2016. The burnout spiral: The emotion labor of five rural U.S. foreign language teacher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100, 522-537.
- Bueno-Alastuey, M. C. 2011. Perceived benefits and drawbacks of synchronous voice-based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in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24(5), 419-432.

- Chen, J. 2016. Understanding teacher emotions: The development of teacher emotion inventory.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55, 68–77.
- Cowie, N. 2011. Emotions that experienced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FL) teachers feel about their students, their colleague and their work.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7(1), 235–242.
- Dörnyei, Z. 2014. Researching complex dynamics systems: 'Retrodictive qualitative modeling' in the language classroom. *Language Teaching* 47(1), 80–91.
- Escobar–Fandiño, F. G. and A. J. Silva–Valencia. 2020. How an online tutor motivates e–learning English. *Heliyon* 6(8). <http://doi.org/10.1016/j.heliyon.2020.e04630>
- Escobar–Fandiño, F. G., L. D. Munoz and A. J. Silva–Valencia. 2019. Motivation and e–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 qualitative study. *Heliyon* 5(9). <http://doi.org/10.1016/j.heliyon.2019.e02394>
- Hiver, P. 2015. Once burned, twice shy: The dynamic development of system immunity in language teachers. In Z. Dörnyei, P. D. MacIntyre and A. Henry, eds., *Motivational Dynamics in Language Learning*, 214–237. Bristol, UK: Multilingual Matters.
- Hiver, P. 2017. Tracing the signature dynamics of language teacher immunity: A retrodictive qualitative modeling study. *The Modern Language Journal* 101(4), 669–690.
- Hiver, P. and Z. Dörnyei, Z. 2017. Language teacher immunity: A double–edged sword. *Applied Linguistics* 38, 405–423.
- Hochschild, A. R. 1983. *The Managed Heart: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Isenbargar, L. and M. Zembylas. 2006. The emotional labour of caring in teaching. *Teaching & Teacher Education* 22, 120–134.
- Jang, Y.–I. 2016. *The Changing Effects of the L2 Motivational Self System on Actual Learning Behavior and Speaking Performance in the EFL Classroom*. Doctoral dissert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raduate School, Seoul, Korea. Retrieved from RISS.
- Jung, Y., Y. Kim, H. Lee, R. Cathey, J. Carver and S. Skalicky. 2017. Learner perception of multimodal synchronous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in foreign language classrooms. *Language Teaching Research* 23(3), 287–309.
- Kim, Y. and T.–Y. Kim. 2018. Korean EFL teachers' emotional labor: An exploratory study. *English Language Teaching* 30(2), 21–41.
- King, J. 2015. "It's time, put on the smile, it's time!": The emotional labour of second language teaching within a Japanese university. In C. Gkonou, D. Tatzl and S. Mercer, eds., *New directions in language learning psychology*, 97–112. New York: Springer.
- Larsen–Freeman, D. 1997. Chaos/complexity science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pplied Linguistics* 18, 141–165.
- Larsen–Freeman, D. and L. Cameron. 2008. *Complex Systems and Applied Linguistics*.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oughabi, M. A., S. M. R. Amirian, S. M. R. Adel and G. Zareian. 2020. The association of experienced in–service EFL teachers' immunity with engagement, emotions, and autonomy. *Current Psychology*. DOI: 10.1007/s12144–020–01066–8

- Rahmati, T., K. Sadeghi and F. Ghaderi. 2019.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teacher immunity: An integrated reflective practice. *Iranian Journal of Language Teaching Research* 7(3), 91–107.
- Song, J. 2018. Critical approaches to emotions of non-native English speaking teachers. *Chinese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41(4), 453–467.
- Stockwell, G. and H. Reinders. 2019. Technology, motivation and autonomy, and teacher psychology in language learning: Exploring the myths and possibilities.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39, 40–51.
- Sun, Y. Y. and F. Gao. 2020. An investigation of the influence of intrinsic motivation on students' intention to use mobile devices in language learning.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68, 1181–1198.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September 30. A global pandemic requires a world effort to end it—none of us will be safe until everyone is safe. Retrieved from <https://www.who.int/news-room/commentaries/detail/a-global-pandemic-requires-a-world-effort-to-end-it-none-of-us-will-be-safe-until-everyone-is-safe>

Examples in: English

Applicable Languages: English

Applicable Level: Tertiary

부록

반구조화 질문지

<p>과목정보) 2020 학년 선생님이 담당하신 과목에 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서술해 주세요. 과목명 과목특징 학교급/학년/전공 학급인원</p> <p>교수자정보) 성별: 연령: 강의경력: 총 (오프라인- 온라인-)</p>
<p>수업정보) 2020년 1학기와 2학기에 실시했던 온라인 수업 형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1학기에는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2학기에는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1,2학기의 수업 형태가 바뀌었다면 그렇게 된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p>
<p>온라인 교수자로서의 경험)</p> <p>1. 2020년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면서 주로 무엇때문에 힘들었나요? 2. 온라인 수업이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다면 어떤 경우였는지 설명해주세요.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솔직한 감정을 표현해주세요. -수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p> <p>3. 2020년 전면적 온라인 수업은 선생님을 어떤 면에서 변화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p>